

친애하는 인공지능 판사님께

강정아 (인턴기자)

아침에 울리는 시끄러운 알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끌 수 있다면? 분주하게 집을 나설 준비를 하며 한바다 명령으로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오늘 날씨나 뉴스를 알아볼 수 있다면? 기억하기 어려운 중요한 날짜를 메모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개인 비서가 있다면?

지난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을 쓸 일이 많았는데, 문득 50~60년 전에 태어나신 나의 부모님 세대는 지금의 기술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졌다. 지금은 당연히 여겨지는 이런 기계들은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나올 뻔한, 아니면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기능들은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졌는데, 어느새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 서두에 가정한 상황들 역시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AI스피커의 주요 기능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는 일들일 수도 있겠다.

한편 법을 공부하며 가까운 미래에 법조인이 될 것을 꿈꾸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과연 인공지능의 발전이 법조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로봇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법률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더 많은 듯하다. 아무리 많은 판결문을 러닝하고, 논

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감과 소통, 설득의 창조적 과정까지 인공지능이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이 어디까지일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법조인 대체 가능성을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법률영역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도입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는 초당 10억 건이 넘는 법률 문서를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을 분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를 도입한 곳이 있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이용하여 기존의 사무업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판사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거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온라인 상담, 서류작성 등의 일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신속함과 편리함을 누리자라는 효율성,’ 이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몰고 올 직업과 업무환경의 변화라는 주제 말고, 왜 사람들은 인공지능 법조인을 찾게 되는 것일까?

법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복잡하게 얽힌 주장들 가운데 정당한 기준을 찾고, 그 기준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최대한 양쪽에게 합리적인 판결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내리는 상황판단과 결정에는 불완전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편견은 배제되어 있고, 전혀

손가락질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 무결점의 인격(?)을 갖춘, 그리고 24시간 일만 하며 최대한 많은 판결문을 정확하게 분석해 내는 로봇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정의를 구하고자 기대를 걸어 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결정해 주는 상대적으로 더 공평한 결정에 나는 과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모든 일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규정하는 일들이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나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들이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을 때 분노하던 나는, 과연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할까 아니면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놓을까?

정말 내가 미래에 ‘친애하는 인공지능 판사님께’라고 말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먼저 억울한 이에게는 정당한 위로를,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